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서울 마포구 창전동 6-264 / hrs3388@gmail.com / 02)365-5412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 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 인권배움터 봄+1/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날짜: 2017년 3월 21일

제목: '촛불 청소년' 인권에 관한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발송

문의: 배경내(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촛불 청소년’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발송

보 도 자 료

-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위해 청소년들이 들었던 촛불을 각계각층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주역,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다 보류되었고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집회 참여”와 “정치적인 단체 활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들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비밀비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년에 대한 체벌·학대, 살인적인 입시경쟁, 빈곤과 취약한 법적 지위 등은 청소년의 존엄과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임을 절감하며,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인식과 정책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 3월 21일 대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시험지 형식을 취하여 10가지 영역별 청소년 교육·인권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답변을 수합한 후, 31일에 각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과 답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질의를 진행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청소년·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의 정착과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모인 연대체입니다.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2014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공약을 모아 발표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의 인권침해적 학교 교칙 사례를 수합하는 <불량학칙공모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청소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 대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양식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페이스북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페이지를 비롯한 SNS에서도 질의서 발송에 관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에 감사드리며,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끝)